

순창군, 승마 문턱 낮춘다

공공승마장, 하반기 전 국민 승마체험사업 선정 10회 강습비 총 30만원 중 5만원만 이용자 부담

순창군이 운영하는 순창군 공공승마장이 한국마사회 승마체험센터에서 주관하는 '2019 하반기 전 국민 승마체험사업' 진행 승마장으로 선정됐다.

2019 전 국민 승마체험사업은 한국마사회에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일상 속에서 말을 타는 즐거움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승마 강습비를 지원하여 승마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승마 초보자를 대상으로 10회 강습비 총 30만원

중 5만원만 이용자가 부담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소방관과 육군의 경우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순창군 공공승마장에서 개인 40명, 공익승마 10명 등 총 50명이 승마체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 국민 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http://www.horsepia.com>)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희망하는 강습과 승마장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

고 신청접수는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일반 성인남녀로 만 18세이상 만 65세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승마체험에 선정된 사람은 순창군 공공승마장을 이용할 경우 9월 18일부터 강습이 가능하며, 신청시 주의할 점은 2018년과 2019년 상반기 전 국민 승마체험 참여자는 초급반 참여가 불가능하다. 단, 순창군 승마장에서 기승능력인증 포니등급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 중급반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승마는 몸무게 80kg인 성인남성이 30분간 승마를 할 경우 300kcal정도를 소모할 정도로 유산소 운동인 만큼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성인들에게 매력적인 운동이다.

군 공공승마장 관계자는 "승마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운동인 만큼 이번이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할 수 좋은 기회다"면서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마사회(호스피아) 홈페이지(02-6006-3496~7) 또는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063-650-55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 국민 승마체험 사업과 별개로 순창군 공공승마장에서는 순창군민이거나 직장을 순창에 두고 있는 사람이면 성인은 5천원, 어린이는 3천5백원에 저렴한 1일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운영하는 순창군 공공승마장이 한국마사회 승마체험센터에서 주관하는 '2019 하반기 전 국민 승마체험사업' 진행 승마장으로 선정됐다.

임실군, 추석명절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30일까지 접수 노인·중증장애인·다문화가정 등 혜택

임실군이 취약계층을 배려한 복지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취약계층 임실사랑 상품권 지원' 사업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지난 연말에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명절에 맞춰 본격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

취약계층 임실사랑 상품권 지원사업은 임실군의 경제적 취약계층인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은 1세대당 연 30만 상당의 상품

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4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한다. 설과 추석명절에 취약계층에 상품권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훈훈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군은 지난 설명절에 1000명 정도의 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며, 이번 추석명절에도 1100명 정도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임실군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정책이 국가적 인정을 받아 기초생활분야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2018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임실군이 선정되기도 했다.

심민 군수는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사업처럼 차별화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발굴했던 부분이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다양한 평가에서 대년간 우수한 성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해 하나하나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은 오는 31일부터 10월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유등면 화탄마을 앞 섬진강변에서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누 체험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섬진강 별내길 카누 무료 체험 하세요"

순창군, 31일부터 10월말까지 주말·공휴일 가능

순창군이 무료 카누체험교실을 열어 관광 상품의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오는 31일부터 10월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순창군 유등면 화탄마을 앞 섬진강변에서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누 체험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카누체험교실은 해양수산부와 순창군이 후원하고 섬진강수상레저연맹이 주관해 운영하며,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체험이 가능(14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탑승가능)하고 현장에서 신청·접수 안전교육과 노젓는 방법 등을 교육 받은 후 체험할 수 있다.

탑승인원은 2명으로 1시간 내외로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카누 무료체험교실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섬진강수상레저연맹(위원장 서한봉) 20여명이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여 직접 운영한다.

군은 지난 47년에 걸쳐 7362명의 군민과 관광객 체험을 통해 성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재 섬진강 카누센터 및 계류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황숙주 군수는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이번 카누체험교실로 순창에서도 수상레저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알리겠다"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부족한 수상레저 인프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카누무료체험교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농촌개발과(☎063-650-1776)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근현대 역사 관련 유물 공개 구입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남원 근현대 역사와 관련된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구입대상 유물은 남원의 근현대사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물과 다양한 자료 등으로 곧 개관할 남원다움관의 전시 및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입대상은 남원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근현대 관련 유물로 1894년부터 현재까지의 서적, 고문헌, 예술품, 문서, 사진, 민속자료 등이다.

남원시는 접수된 유물에 대해 남원

다음 수집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하며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은 본인에게 즉시 반환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다움관은 2019년 8월 임시 개관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9월(예정) 급동 고샘지구에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유물이나 자료를 매도할 개인소장자 및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단체 등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남원시 총무과(063-620-6083)로 접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